

옛 은행 유적에서 만나보는 력사의 기억

위만주국 중앙은행본점 옛터 특별전에 가본다



9월 3일, '증언과 재탄생: 위만주국 중앙은행본점 옛터 특별전'이 장춘시 위만주국 중앙은행본점 옛터인 현재의 중국공상은행 장춘인민광장 지점에서 막을 올렸다.

근 100년전의 문서, 사진, 실물 등 소중한 력사자료들이 시공간을 넘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366평방미터에 달하는 전시홀은 식민 도구에서 인민금융기관으로의 변모 력정을 체계적으로 전시했다.

위만주국 중앙은행본점 옛터에 들어서면 웅장하고 정교하게 건설된 공간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있다. 한 쪽은 현대와 은행의 일상적인 운영 모습인데 컴퓨터, 자동화기기 등이 갖춰져있고 찾아오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은행직원들은 또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늘 날 경제사회발전의 활력과 편의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쪽은 전시 현장인데 옛날

지폐, 옛 신문, 력사 사진들이 전시되어 길림 금융업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기록하고 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증언과 재탄생'을 핵심으로 네개 단원으로 나누어 풍부한 실물과 문헌자료를 통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 복잡하고도 깊이있는 력사를 느낄 수 있게 했다.

현장에 전시된 민국시기 사첩조판(私帖抄版, 민간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지폐를 인쇄하는 판), 위만주국 중앙은행 구좌 등은 모두 당시 동북지역 금융 교류의 생생한 증거물이다. 상세한 사료와 풍부한 전시품은 강력한 설복력을 지니고 있는바 개막 당일 이미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관람했다.

올해 78세인 주문향 할머니도 개막 날에 전시장을 찾았다. 그는 1970년 장춘에 와서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이

건물을 보는 순간 그 웅장함과 신비로운 기운에 매료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늘 전시를 통해 이 건물 배후에 숨겨진 이야기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할머니는 "지난 일을 잊지 말아야 후날의 스승이 된다"는 말처럼 력사를 기억하고 후세들에 경중을 올려주어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공장춘시위 당사연구실 부주임 양홍유는 전시의 내용 구성과 창작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이 전시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의 독립과 국가의 자유를 위해 치른 선구자들의 큰 희생을 기억하게 하고 새 중국 창건후 장춘 인민들이 분발하여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한 위대한 성취를 느끼게 하며 마음을 모아 힘차게 나아가면서 계속하여 투쟁하는 정신적 힘을 얻게 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전시구역중 특히 관람객들의 발길

을 잡는 곳이 있었다.

하나는 이번 전시에 등장한 한 조선족 영령의 초상화이다. 그는 장춘 해방전투에서 부대를 지휘하여 공을 세운 공산당원 박락권(朴洛权) 동지이다. 박락권은 길림성 왕청현 사람이다. 1936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했고 1938년 9월, 동북항일련군 제5군 2사 5단 2련 령장을 역임했다. 항일전쟁 승리후 박락권은 연변경비려 창설에 참여하였으며 제1탄 부장이 되었다. 1946년 3월 14일, 장춘 공격부대를 따라 연변경비려 1탄은 장춘으로 진군하러는 동만군구의 명령을 받았다. 당시 박락권은 결혼한 지 불과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빈번한 전투로 안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장춘 해방의 새로운 임무를 받았을 때 그는 다시금 가족과 리별하고 전선으로 향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전중 위만주국 중앙은행에 잔존한 적대 세력을 포위 섬멸하는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희생되었다. 박락권은 29세의 젊고 장렬한 일생을 혁명사업에 바쳤고 나라와 인민에게 바쳤다.

다른 하나는 1950년 2월 28일, 모주석이 동북은행 장춘지점을 친히 찾아 시찰한 것인데 당시 그는 지방 은행 책임자의 보고를 듣고 위만주국시기의 이 건축물에 대해 "모두 중국 로동인민의 피와 땀으로 건립된 것이고 중국인민의 로동 성과"라고 지시했다. 많은 관람객들은 진한 적색 바탕의 커다란 글씨로 쓴 전시판 앞에 오래동안 멈춰서서 그 깊이있는 력사적 평가를 읽으며 사색에 잠겼다.

위만주국 중앙은행본점 옛터는 동북 대지가 겪었던 식민 략탈, 불굴의 항쟁으로 재탄생을 얻은 파란만장한 격변을 기록하고 있다. 일제침략자들의 금융 도구에서 새시대 인민금융기관으로 변모된 이곳은 식민 폭행의 살아있는 증거이자 민족부흥의 증인이기도 하다.

/ 주동 류향휘 기자

'나와 조선어' 수기·작문 콩쿠르 시상식 연길서



▲ 대상 수상자 최정욱

연변정음문화교류중심에서 주최하고 (연변)커시안그룹, 길림천우그룹에서 후원한 제4회 '나와 조선어' 수기 공모, 제3회 '나와 조선어' 중소학생 작문 공모 시상식이 9월 7일 오전 연길시러산화원에서 있었다.

연변정음문화교류중심 김정일 회장은 개막사에서 '조선언어문자의 날' 11주년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3주년을 맞으면서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조선어를 사랑하는 전국 각지의 중소학생들과 직장 사무원, 리퇴직 로인들이 보내준 124편의 작품이 응모되어 약 한달간 교류중심 위챗계정을 통해 발표되면서 많은 공명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조선언어문자를 보호하고 전승해가는 이 같은 행사를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변정음문화교류중심 고문인 연변

대학 김호웅교수와 교류중심 리사이며 시인인 름금산이 수기조와 작문조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평을 하였다.

수기 공모 시상식에서 김은철, 황지연, 최봉녀 등 11명이 우수상을, 전복선, 최명옥, 신장룡 등 6명이 동상을, 장승심, 김천명, 리나 등 3명이 은상을, 담정영, 피규련 등 2명이 금상을 수상하고 최정욱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지냈다.

중소학생 작문 시상식에서는 연길시제3중학교 9학년 4반 전소희 등 20명이 우수상을, 연길시제3중학교 7학년 1반 리은서 등 10명이 동상을, 도문시제5중학교 9학년 1반 최유진, 연길시제10중학교 7학년 5반 지한나, 길림시조선족실험중학교 5학년 2반 넷자하 등 3명이 은상을, 길림시조선족중학교 고중 3학년 2반 랑오정, 왕청현제2중학교 3학년 1반 심수영이 금상을 수상하고 연길시제3중학교 9학년 6반 허윤정이 대상의 영예를 지냈다.

그외 연길시제3중학교 김미나교원이 조조직상을, 김미숙교원이 최우수 지도교원상을, 송미선, 김해숙, 최봉녀 등 20명 교원들이 우수 지도교원상을 수상했다.

/ 김태국기자



아동문학의 향연!

골든해양아동문학상 시상식 연길서 성료

제5회 골든해양아동문학상 시상식 및 아동문학 세미나가 지난 9월 6일 연길에서 펼쳐졌다. 행사는 연변조선족아동문학연구회에서 주최하고 향향골든해양항운그룹에서 후원했다.

회장 김장혁은 인사말에서 "골든해양아동문학상이 어린이들과 작가들에게 꿈과 희망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시상식의 취지를 강조했다.

심사위원들은 창의성, 문학성 그리고 어린이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깊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엄숙한 심사를 진행했다. 평의 결과 평론부문에서는 허두남의 <김민석 교수의 동화, 우화에 대하여>가, 동시부문에서는 박송천의 <나무의 수학공부>(외 2수)가, 동화부문에서는 박경화의 <미용한 파리>가 각각 선정되어 이날 상장과 상금을 받아안았다.

이어서 펼쳐진 아동문학 세미나에

서는 아동문학 리론가이며 평론가인 김만석 교문이 '수기와 그 창작'이란 주제로 문학리론 특별강좌를 펼쳤고 김만석교수의 수기 3편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1년간 연변조선족아동문학연구회는 아동문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회의 빠른 성장을 위해 조직구도 편성, 경제관리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했고 6명 회원이 새로 입회했다. 제4회 골든해양아동문학상 시상식과 새해아동문학상 시상식을 두차례 펼친 외에도 각종 아동문학 탐구회와 학술회의를 4차 조직했으며 아동문학 작가들의 뜨거운 창작 열기로 소설, 동화, 동시, 평론 등이 <꽃나라>, <아동문학작품집>, <연별일보>, <소년아동>, <소년보> 등 간행물에 발표되었다.

/ 리련화

연길시문련과 장동춘, 함께 항전 승리 80주년 경축

지난 9월 3일, 연길시 장동춘 문화관에서 붉은기 휘날리고 노래소리가 우렁차게 울려퍼졌다.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쑸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 및 열병식을 관련한 후 연길시문련 '손에 손잡고' 예술단의 자원봉사자들이 장동춘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문예공연을 선사하며 주민들과 함께 자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공연은 <동방홍>의 장엄한 선율

속에서 시작되었다. 공연자들은 진실한 감정으로 력사를 아로새기고 선렬들을 추모하며 평화를 아끼고 미래를 열어가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의 당당한 기개를 표현했다. 이어 상황국 <1937년을 기억하다>, 소합창 <강군찬가>, <남나만을 다시 부르다>, <장백송> 등 노래들이 차례로 선보였다. 이는 관중들로 하여금 1945년부터 2025년까지의 80년 동안의 빛나는 세월을 돌아보게 하였다.

"정의 필승! 평화 필승! 인민 필승!" 공연 과정에서 주민들은 국기를 흔들며 합창 구호를 외쳤다. 이는 항전정신에 대한 경의이자 조국의 강성에 대한 자호감 넘치는 감정이었다.

"열병식에서 강철장성 같은 대렬과 전투기들이 우뚝 선 모습은 우리들을 격동시켰습니다. 기층 문예자원봉사자로서 우리는 더 우수한 작품들로 위대한 조국을 노래하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찬양할 것입니다." 공연일

군 류파는 독무를 출연한 후 감개무량해서 말했다.

공연은 마지막으로 합창 <조국을 노래하네>로 절정에 달했다. 주민들은 항전정신을 전진의 동력으로 전환하여 투쟁의 자세로 조국과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나갈 신심에 차 있었다. 이번 문예공연은 단순한 문화적 향유를 넘어 생동감 있는 애국주의교양 현장에서 승화되었다.

/ 주동기자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天津大郑剪纸

中华有福
助人是福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